

連載 :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 [完]

朴彦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教授

金東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Prof. / Hong Ik University

Kim, Dong Uk — Instructor / Kyung Ki University

6. 지붕

1. 지붕의 개념

西洋建築과 비교하여 볼 때 東洋建築, 특히 中國系 木造建築에서 지붕은 단순한 外部의 自然環境으로부터의 보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었다. 지붕은 超自然的인 災殃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呪術的 의미와 建物全體의 性格·地位를 규정하는 意匠과 造形도 갖추었다. 따라서 建築技術의 過程은 지붕構體를 結構하는데 귀결하였다.

이와 같이 지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왔지만 傳統的 建築觀과 對比하여 볼 때 現代建築에서 갖는 지붕의 의미는 너무나 빈약하다. 傳統建築의 계승이 대두될 때 지붕형태가 쉽사리 부활되었던 것도 과거의 지붕중시사상이 우리의 건축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데서 나타난 反作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지붕을 重視하였던 建築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中國系 木造建築에서 지붕은 어떠한 意匠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지붕의 造形이 같은 中國系 木造建築 속에서도 地域에 따라 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서 地域的 차이 속에서 韓國建築은 지붕에 어떤 特性을 保有하였는지를 考察하고자 한다.

2. 장식과 사상

中國系 木造建築의 지붕이 갖는 特性은 呪術的 의미와 독특한 意匠性으로 要約할 수 있다.

呪術的 의미란 建物內部를 超自然的인 힘, 즉 鬼神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지붕에는 鷓尾(鷓尾)·鬼面·雜像 등이 장식되는 것을 말한다. 지붕에 어떠한 상징적인 형태를 놓음으로써 雜像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것은 폴리네시아 諸島의 原始住居에서도 발견되지만 中國系 木造建築은 그것이 특별히 강조된 느낌이다.

鷓尾는 용마루의 양끝에 얹은 날짐승 꼬리모양의 장식기와이다. 鷓尾에 대하여는 그 起原이나 각종 形態에 대하여 定說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으나 鷓尾설치의 목적이 화재를 면하고자 하는 呪術的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그밖에 鬼神퇴치의 의미도 주장되고 있다. 鷓尾가 처음 나타난 시기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漢代以後, 용마루를 曲線으로 처리하여 용마루 양끝을 높여 강조하는 경향이 발전하여 鷓尾를 만들어 냈다는 說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구려·백제·신라건축에서 鷓尾가 나타나는데 평

양 安鶴官跡, 신라 안압지유적, 백제의 扶蘇山廢寺 등에서 完形에 가까운 것들이 出土되었다.

鬼面은 기와의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이나 사레마루에 붙인 獸形장식이다. 鬼面 역시 建物內에 雜鬼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 특히 고구려 瓦當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雜像은 귀마루에 얹은 여러가지 神像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히 궁전건축에서 많이 보인다. 雜像은 건물에 따라 그 형상이 다양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雜像은 朝鮮時代末期까지도 官衙 建物에서 重視되어 朝鮮時代의 工匠中에는 雜像만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雜像匠이 있었다.

이밖에도 中國系 木造建築의 지붕에는 용마루 가운데 놓이는 봉황장식, 처마의 합각상단에 붙이는 懸魚 등도 간혹 보이는데 이것도 지붕의 呪術性과 관련된 장식으로 생각된다.

中國系 木造建築의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의장적 특징은 처마의 솟음, 지붕면의 曲面처리 등이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中國·韓國·日本의 前위건축물들은 모두 처마

의 양끝을 치켜 올려 보통은 용마루도 처마에 맞추어 양끝을 치켜 올리는데 이러한 수법은 西洋이나 다른 지역의 건물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 中国系 건축의 특징이다. 지붕 면을 안으로 들어간 曲面으로 하고 처마의 양끝을 치켜 올리는 수법이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今世紀의 東西洋 學者間에 여러 가지 說이 나왔으나 아직 설득력 있는 定說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붕을 曲線으로 처리함으로써 수평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 즉 지붕의 용마루나 처마의 양끝이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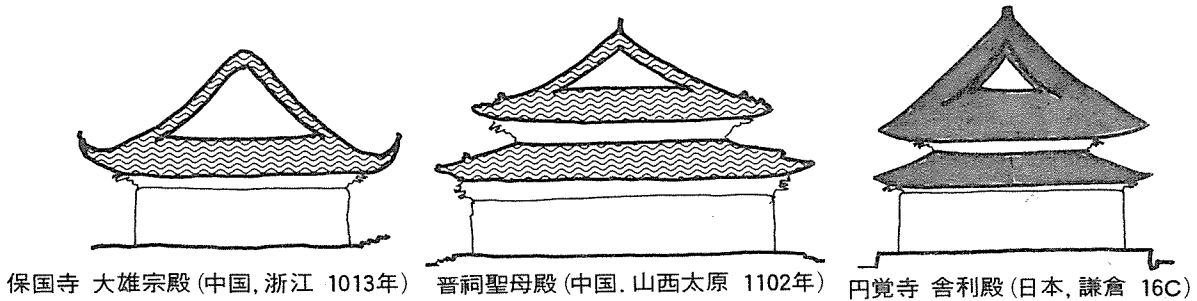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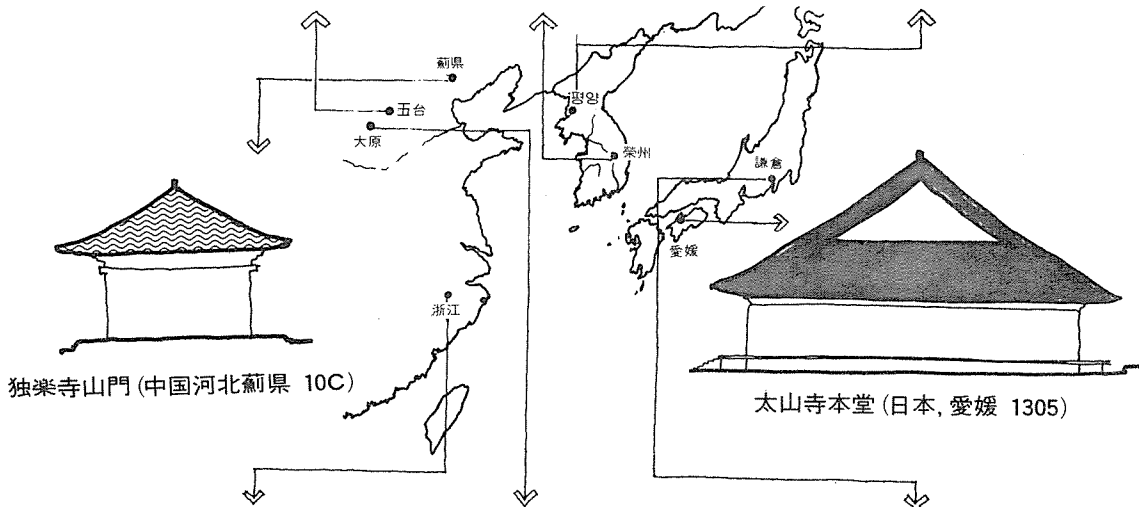
처져 있는듯이 보이는 것을 교정하여 주는 효과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中国系 建築에서 지붕은 특별히 중시되었는데 中国系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인 栱包의 구성은 지붕의 의장과 깊게 관련되어 발전되었던 것이다. 처마부분은 지붕 면을 안으로 휘게함으로써 치켜 올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 처마는 침차들을 길게 빼내어 支持하였다. 처마를 지지하는 침차는 점점 복잡하고 섬세하게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栱包는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었던 것이다.

3. 중국·한국·일본의 지붕

앞에서 본 지붕의 특성은 中国系 木造建築의 공통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동일한 木造建築에서도 地域的인 차이에 따라 지붕의 형태는 달라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自然條件, 즉 강우량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강우량의 多少에 따라 지붕의 구배는 서로 달라지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붕의 全体造形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은 地域에 따른 지붕구배 및 지붕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中部以北과 以南, 中国의 華北과 華南, 日本 등지의 대표적 建物



들의 立面을 스케치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柱心包式으로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안동소재·13세기), 다포식으로 평양 보통문(평남 평양소재·1473년)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두 건물이 柱心包와 多包式 건물 중에 비교적 建立年代가 빠른 편이며 하나는 한반도의 남쪽, 다른 하나는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国建築은 華北地方의 例 3棟과 華南地方의 1例를 들었다. 그 중 佛光寺大殿은 唐末의 建築이며 獨樂寺山門은 遼代의 대표적 建築으로 두 건물은 모두 우진각 지붕이다. 普祠 聖母殿은 우리나라의 多包式 건물과 약간 유사한 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 건물은 모두 北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華北地方의 대표적 建築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佛光寺大殿은 建立年代가 837년으로 밝혀져 南禪寺와 함께 中国最古建物の 하나로 꼽히고 있다. 華南地方의 建物들은 現存하는 遺構도 많지 않은데다가 實測圖面도 거의 알려져 있지 못한 형편이나 그 가운데 保國寺大殿은 비교적 華南地方의 性格을 잘 나타낸 건물이며 일찌기 실측도면이 공표된 건물이다.

日本의 경우는 古代로부터 近世末까지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日本의 地理的 條件에 의해 日本的 性格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건물 2棟을 골라 보았다. 日本 關東地方에 있는 日本式 多包系 건물의 代表作인 圓覺寺 舍利殿과 西南地方에 있는 日本式 柱心包(和樣)系의 代表建物の 하나인 太山寺 本堂이다.

그림의 8棟의 건물들은 모두 동일한 中国系 木造建築이지만 그 지붕의 형상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것은 華北地方이나 日本의 建築과 華北 및 우리나라 建築의 지붕구배이다. 前者는 급한 구배를 이루고 있고 後者는 매우 완만한 구배인데 이러한 구배의 차이는 지붕전체의 볼륨에도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立面上으로 보아 日本 西南部의 太山寺 本堂은 전체 建物 높이의 약 3분의 2를 지붕이 차지하는데 비해 華北地方의 獨樂寺 山門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우리나라 建築의 지붕은 華南의 建築이나 日本建築과는 물론 다르지만은 華北建築과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무량수전은 華北地方보다 지붕구배가 약간 급하며 처마의 깊이도 佛光寺大殿이나 獨樂寺山門보다 깊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붕형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강우량과 같은 自然條件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4. 意匠性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建築의 지붕은 西洋과는 달리 呪術的인 의미에서 중요시 되어 왔고 曲線과 曲面에 의한 특성은 意匠으로 처리되어 왔으며 이것은 中国系 木造建築이 갖는 공통적 특성이었다. 또 韓國建築은 그해 있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같은 中国系 建築 안에서도 서로 구별되는 지붕의 形狀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韓國建築의 지붕이 같은 中国系 建築 사이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독특한 意匠性에서이며 그것은 지붕을 구성하는 細部の 表現手法에서 起因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처마의 曲線, 지붕의 장식, 지붕표면의 재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처마의 曲線을 예로 들어 볼 때 韓國建築의 그것은 中国이나 日本과 비교하여 技法的으로 매우 古式에 속한다고 하겠다. 즉 기와지붕의 처마곡선은 처마中央의 反曲點이 뚜렷하지 않은채 左端에서 右端으로 완만하게 굽은 것일수록 古式에 속하며 시대가 내려 갈수록 처마는 中央部가 平行을 이루다가 左右端 가까이에서 갑자기 치켜 올려지는 경향을 띤다. 木造建築의 架構技法은 대개 盛唐期인 9세기경에는 완전히 성숙되는데 이때의 中国建築의 처마 曲線은 反曲點이 뚜렷하지 않은 완만한 曲線을 나타낸다(예: 南禪寺大殿·佛光寺大殿). 그러나 現存하는 元代(13세기—14세기)의 建築 가운데에는 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처마곡선, 즉 中央은 水平이고 兩端部만이 치켜 올려지는 예가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形態는 後代의 明·淸時代의 건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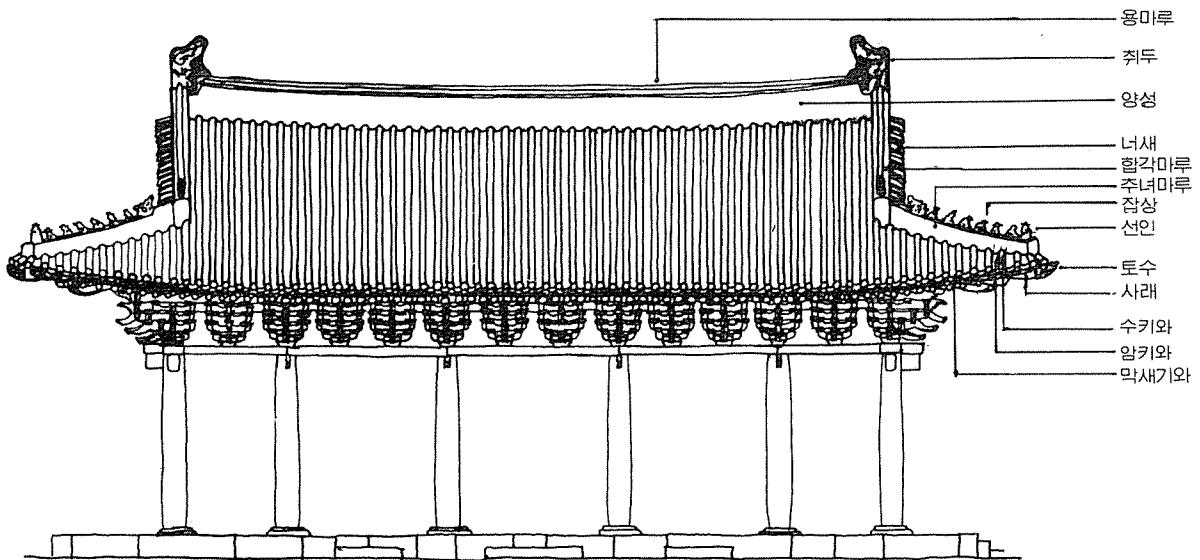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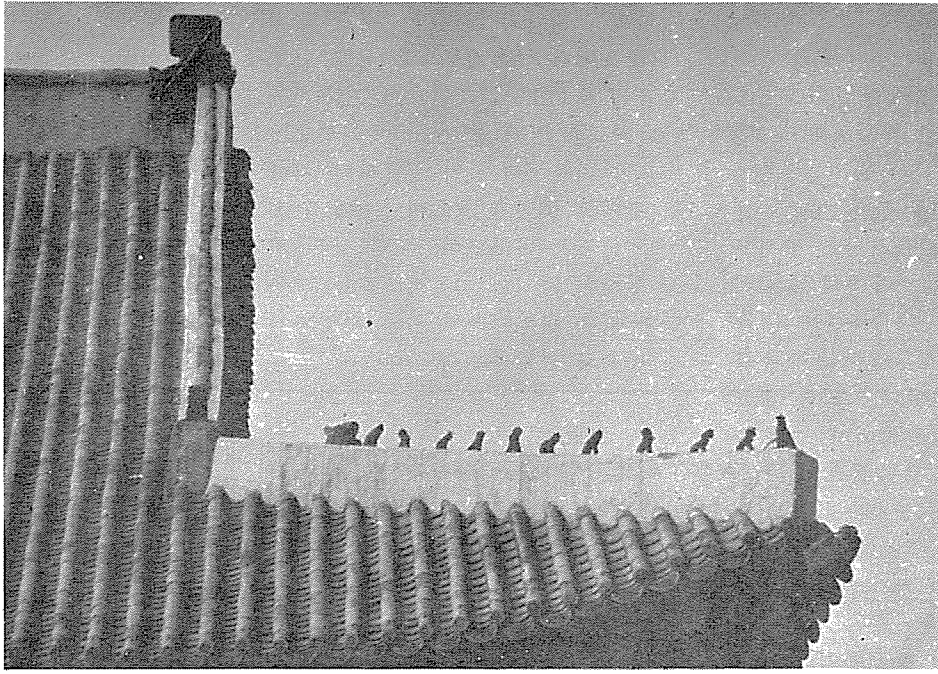
한편 日本建築의 경우는 처마曲線

의 시대적 변천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대개 11, 12세기를 경계로 하여 그 以前에는 뚜렷한 反曲點이 없던 것이 13세기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처마曲線이 兩端을 치켜 올리는 手法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建築의 처마曲線은 高麗時代는 물론 朝鮮時代末期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反曲點이 뚜렷치 않은 완만한 曲線, 즉 古式手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처마曲線의 技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美的感覺의 변화 또는 生産技術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韓國建築이 끝까지 古式을 견지한 데에는 明白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만 韓國建築은 기둥의 굽기라든가 架構手法 등에서도 東洋三國中 가장 古風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음을 以前의 考察에서 몇차례 확인하였는데 처마曲線의 手法도 이러한 다른 部材들과의 관련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붕表面을 덮는 材料의 종류나 色感에 있어서 韓國建築은 비교적 人工이 적게 가하여진 自然스러운 모습을 重視하였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靑瓷瓦나 琉璃瓦와 같은 특수한 기와를 사용한 일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특수한 예이고 대부분은 기와에 다른 색채를 입히는 일은 없었다. 이것은 中国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다. 中国建築은 多樣한 色彩와 文樣에 의해 건물간의 질서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지붕 역시 황색·청색 등 다양한 색채를 구사한다.

지붕材料에 있어서 韓國은 기와 한 가지에 의존해 왔다고 생각되는데(民家は 예외로 함) 17세기의 日本의 佛敎寺院의 지붕재료는 기와 외에 銅板, 나무껍질(주로 桧木이나 杉木) 등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中国에서는 기와를 여러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암키와만을 앞뒤를 바꾸어 가면서 덮는다든지 수키와를 암키와보다 넓적하게 하는 등이다. 日本에서는 대개 17세기 말부터 方形으로 中央을 안으로 휘게하여 波狀을 만들게 한 소위 機瓦(상가와라)를 開發하여 住宅, 寺院建築 등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것은 기와의 제작과 시공을 간편히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와의 모



창경궁 명정전 지붕立面 各部명칭

습이다.

비바람과 日射를 막는 목적 외에 특별한 정신적 의미를 지붕에 부여하였던 中国系 木造建築에서는 당연히 지붕에 여러가지 장식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 적에서도 韩国建築은 매우 담백한 성격으로 처리되었다. 中国建築의 지붕 용마루는 양끝의 鷓尾 외에도 중앙에 여러가지 복잡한 동물장식이나 文樣을 첨가하며 처마 박공면에도 잡

다한 장식을 가하였다. 韓國의 궁전 건축에서 종마루나 박공마루는 흰 회칠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와의 색깔과 서로 대조되어 지붕의 線을 강조하여 주며 흰 회칠의 종마루가 서로 重疊되어 이루는 지붕의 경관은 韩国建築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이다.

以上 처마의 曲線이나 지붕材料·色相·지붕장식 등에서 볼 때 韩国建築

은 비교적 古風에 속하는 反曲點이 뚜렷치 않은 완만한 曲線을 갖고 있으며 한정된 材料와 色相으로 이를 효과있게 꾸며나가는 手法, 즉 材料 본래의 形狀과 色相을 살리면서 종마루와 박공마루 등을 희게 장식하여 지붕의 윤곽을 강조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던 것을 알아 보았다.